

네덜란드 구조주의 건축의 실내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ior Architectural Characteristic of Dutch Structuralism

정미현* / Jeong, Mi-Hyoun
김문덕**/ Kim, Moon-Duck

Abstract

As Dutch structuralism discovered a possibility that can improve the problem of modern architecture through study on non-western area. Dutch structuralism had tremendous impact on Philosophy, psychology, art history and the style of a dress and many other cultural trend. In architecture, Aldo van Eyck embodied that theory and succeeded to Herman Hertzberger and Piet Blom. As result, Structuralism related with architecture has dealt with the participation and domain of residents, namely public domain and private domain, the approach property of public space, middle domain which shows the harmony between public domain and private one, and the structuralism discovered that each element of public space and private space has been developed as an architectural type that makes a group by repetitive arrangement and it found out a possibility that can make up problems overlooked in modern architecture through development and change.

키워드 : 구조주의 건축, 네덜란드 구조주의, 네덜란드 실내공간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근대건축 이후 1950년대 중반까지의 건축은 근대의 획일적 건축양식¹⁾이 지역문화의 특성을 무시한 채 도시공간의 맥락성 결여와 무질서, 지역문화의 정체성 상실, 건축의 의미와 상징성 결여등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네덜란드에서는 근대건축의 이러한 문제점을 1950년대에 와서 사회와 건축 구조의 상호관계를 연구하여 수정,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사상이 구조주의이다.

구조주의의 기본적 접근 방식은 인간과 건축환경의 본질적 관계성에 기초하여, 전반적인 건축환경을 공시성과 통시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초역할을 하는 객관적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다. 즉, 어떤 독립적 특수성 보다는 일반적 다양성을 지니는 건축환경에의 추구인 것이다. 이와 같이 구조주의 건축은 불변하는 일반적 사항을 중요시한다. 즉 장소를 막론하고 모두 동일하며, 다만 동일한 사물에

대하여 다양하게 반응, 변형되어 진다는 구조인류학과 개인적 해석의 총 집합체인 구조언어학의 랑그와 빠를의 개념을 건축에 도입시켜 발전시켜 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구조주의 사상이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현재의 상황에 어울리는 현실적 제안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구조주의 건축은 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네덜란드 구조주의의 이론을 배경으로 하며, 대표적 건축가인 알도 판 아이크와 그의 영향을 받은 헤르만 헬츠베르하 그리고 피에트 블롬 등의 건축물을 연구범위로 한다. 건축물의 선별은 1957년부터 1980년까지의 작품을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1957년에 지어진 알도 판 아이크의 '어린이의 집'을 구조주의 건축의 시초로 보았으며 1980년대 이후로는 네덜란드 구조주의의 활동이 왕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구 방법은 국내에 나와있는 문헌자료를 배경으로 작품을 분석하였다.

* 정희원, 건국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실내환경디자인전공

** 이사, 건국대학교 실내디자인 교수, 공학박사

1) 김문덕, 네덜란드 근대건축의 상황과 전개, (Plus, 2000, 01), p.168

2. 네덜란드 구조주의 건축의 배경

2.1. 이론적 배경

(1) 구조언어학

구조언어학은 프랑스의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에 의해 주장되기 시작했으며 그는 하나하나의 독립된 요소가 아니라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주목, 이러한 관계의 체계를 구조라고 했다.

그는 언어를 언어 체계와 언어 행위로 구별함으로써 언어가 상호 보완적인 두 측면 즉 랑그(langue)²⁾와 짜룰(parole)³⁾로써 표현하였다.⁴⁾

미국의 언어학자인 놈 촘스키(Noam Chomsky)는 소쉬르가 주장한 '랑그와 짜룰'이라는 용어를 건축과 연결될 수 있도록 더 일반적인 재-공식화를 시도하였으며, 이를 능력(competence)과 실행(performance)으로 소개하였다. 능력은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를 가진다는 지식인 반면, 실행은 사람들이 구체적인 해결안에서 그러한 지식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언급된다고 보았다.

놈 촘스키는 레비 스트로스가 신화를 비교하는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언어들을 비교함으로서 모든 인간은 언어적 능력이 유사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언어를 하나의 패턴으로 보았다. 그는 언어의 유사성을 '생성문법(generative grammar)'에서 출발하였으며, 이것은 유사한 바탕 위에서 형태의 창조와 공간적 조작이 근본적으로 같은 원형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다양한 문화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균원적인 능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소쉬르의 공시적, 통시적 언어법칙에서 볼 수 있는 공시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구조주의 건축에 있어서 공시적 사고는 근대 기능주의 건축의 몰락 이후 건축의 조류를 잊은 채 방황하는, 다원화되고 다양해진 시대상황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기본적 사고가 되었다.

(2) 구조인류학

프랑스의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 스트로스(Claude Levi-Strauss)는 소쉬르의 언어학을 통해 보편적 정신구조들을 밝혀내려는 체계적인 연구를 적용함으로서⁵⁾ 사실상 구조주의 사상

2) 랑그(langue) : 언어활동의 사회적 부분으로 개인의 외부에 있으므로 개인 혼자서는 창조할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다. 이러한 랑그는 공동체 성원들 사이에서 맺어진 일종의 계약으로 개인이 언어의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이를 습득해야 한다.

3) 짜룰(parole) : 개인적이고 지적인 개인 행위이며, 화자가 그의 개인적 사고를 표현하기 위해 언어 코드를 사용할 때 행하는 결합이고, 화자가 이 결합을 표출하도록 해주는 정신-물리적 메카니즘이다. 짜룰은 개성있는 언어활동의 행위라 할 수 있으며, 개인마다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랑그는 모든 사람의 의사소통의 규칙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와는 무관하다.

4) F. Saussure 저, 최승언 역, 일반 언어학 강의, 민음사, 1995, pp.20~30

의 창시자로 평가된다.

레비 스트로스는 모든 문화의 발전 과정 속에는 역사적인 기본 구조(친족, 신화, 「야생」의 사고)가 내재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상호 관련성에 관한 원초적인 모델들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그는 항상 어떤 맥락 안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무의식적 형태를 관찰할 때, 삶의 다양한 표현의 배후에 내재하는 구조를 찾으려 하였고,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진실되게 이해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즉, 처음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구조화하고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하는 미지의 차원을 찾는 것이라 생각하였다.⁶⁾

그는 인간의 원초적 상황을 보여주는 원시 고대 문명을 연구범위로 정하여 원시 고대문명의 다양한 신화와 전설을 연구, 그 안에서 같은 주제가 되풀이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변형-법칙의 적용을 통해 다른 문화 안에서 모든 행동의 패턴은 서로의 변형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원시적인 문화는 문명화된 문화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를 단지 변형한 것이라는 것이다.

즉, 인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두 동일하다는 생각에서 옛 것에 대한 인용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동시에 환경에 대응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자발적으로 행하며, 그 과정에서 정교하고 복잡한 세계상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건축에서 성장과 변화, 환경과의 동화, 과거 요소의 개념 유출 등의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표 2-1> 언어학·인류학적 측면 비교 분석

	언어학적 측면	인류학적 측면
발생동기	· 건축을 전체와 부분으로 인식	· CIAM의 봉괴와 Team X 대두 · 기계주의적 기능주의 비판
연구대상	· 언어의 원형연구	· 원시문명 연구
학문적인 인용	· 랑그와 짜룰을 통해 이중성을 가진 대립적인 한 쌍의 존재 유출 · 통시성과 공시성을 건축에 적용	· 원주민 주거의 원시형태로부터 '모호성 속의 명료성', '질서와 혼란' 등의 개념 유출 · 거주자의 아이덴티티 표현
공시적 사고 방식	· Noam Chomsky 모든 인간은 언어적 능력이 유사하다.	· Levi-Strauss 모든 문명의 발전 과정 속에는 역사적인 기본 구조가 내재되어 있다.
건축적 적용	· 요소들의 두드러진 형태 등의 대립표현 (높고 낮음, 새것과 낡은 것, 개방과 폐쇄, 안과 밖 등) → 상자현상	· 다양한 구조와 다이아인 성격 표현 · 집단적 패턴 안에 개별적 해석 가능한 원형 · 관계의 다발 형성 → 분절된 형태
대표적 건축가	알도 판 아이크, 헤르만 헬츠베르하, 피에트 블룸	

2.2. 건축적 배경

CIAM이 팀 텐(Team X)으로 이행할 당시, 네덜란드에서는 방대한 여행을 통하여 아프리카나 북미대륙과 같은 옛 문명을

5) Claude Levi-Strauss 저, 김진숙 역, 구조인류학, 종로서적, 1983, p.69

6) A. Lüchinger 저, 최종현·이기민 역, 구조주의 건축과 도시계획, 세진사, 1989, p.29

연구하였으며, 이들 “건축 인류학자”들은 과거를 조명하고 인간의 원초적인 요소를 연구함으로서 이를 건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였다. 이들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인간은 누구나 동일하다는 구조인류학과 건축에서 표현되는 개인적인 해석인 구조언어학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은 동일한 공간에 대하여 다양하게 반응한다는 개념을 기본 전제로 하였으며, 기능주의의 무의미한 거대한 공간보다는 다양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여지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네덜란드 구조주의는 알도 판 아이크에 의하여 구체화되었고, 헤르만 헬츠베르하나 피에트 블룸 등에 의해 계속적으로 발전되었다.

3. 네덜란드 구조주의 건축의 사상

3.1. 쌍자현상

쌍자현상은 개개의 성격을 잊지 않은 상태에서 두 개의 상반된 느낌을 가진 양면현상이 같은 건축 안에서 함께 기능을 발휘한다는 의미로 이것은 복합성과 대립성을 지닌 건축을 추구한다.

구조주의자들은 건축이 서구적 사고가 지닌, 되풀이 되고 불변하는 대립적인 것-통일성/다양성, 부분/전체, 작은/큰, 많은/작은, 열린/닫힌, 안/밖, 운동/휴식, 중심/분산-을 재발견하고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러한 대립적인 요소들은 상대적인 것으로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평형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팽팽하게 조율되어야 하고⁷⁾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상호관련성을 통해 연결되어 역동적인 조화 안에서 서로에게 각각 독립이 부여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립적인 요소간의 자연스런 연결공간의 중간요소로서 매개공간⁸⁾을 필요로 하게 된다.

3.2. 공동결정

과학의 발달로 인해 소외된 인간성 회복을 위한 해결책으로서 개개인이 공간에 대하여 참여의식을 갖게 하며, 이로 인해 더욱 많은 애착과 관심을 쓸게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구조주의 건축가들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건축적 해결책을 찾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즉,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획일성을 배제하며 거주자들은 좀더 직접적으로 환경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공동결정의 실현문제는 건축가가 설계한 구조체 안에서 거주자들에게 부여된 허용의 폭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서 구조체는 집

단적 요구에 대한 해석이 될 수 있다.

이는 사용자 스스로에 의해 전체적인 공간구성이 이루어지며 주변 환경에 자신의 노력과 감정을 많이 부여할 수록 더욱 애착이 가게 되는 개인적 환경을 위한 욕구와도 관련이 있다.⁹⁾ 여기서 집단적 패턴과 개인적 해석과의 관계는 체계로서의 언어와, 이 체계 안에서의 다양한 발화인 말과의 관계로 볼 수 있다.

3.3. 원형(原形)의 해석

원형에 대한 사고는 네덜란드 구조주의자들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근본적인 사상으로 이들은 원형을 과거에서부터 지속되어온 인간사회의 변하지 않은 근본원리로 해석하고 있다.¹⁰⁾ 이들은 방대한 원시부락의 여행을 통해 인간사회에는 시간을 초월한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알도 판 아이크는 불연속 개념과 동시대적 사고방식의 개념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모든 상황하에서 무한한 다양성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보고, 이처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대중은 결국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항구적인 원형으로 환원되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형태가 나타나며, 원형의 정상적·기본적 성격에의 수행을 가능케 하는 형태가 생겨 나오는 것이다.

그는 또한 현대도시를 생명력이 없는 무수한 특질들로 조개어져 있다고 보았으며, 각 부분이 전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의 생명력 있는 유기체를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4. 시간의 내면성과 투명성

알도 판 아이크는 과거의 경험이 축적되어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현재라는 시간은 깊이를 지니게 되며, 이를 시간의 내면화 혹은 투명화라 하였다.¹¹⁾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마음 속 깊은 곳에 하나의 연속체로서 살아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모든 문화는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면을 지니고 있고, 각각의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며 서구문명이나 원시문명은 모두 나름대로의 가능성을 수행하며 독특한 방식으로 처리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시간과 장소로부터 유리된 곳에서 모든 문화 패턴의 고유가치의 인식이나 그 정당화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로부터 인간의 불변하는 조건을 발견해야 하며 과거 여러지역 속에 내재한 본질적인 인간의 의미를 한데 모아야 한다고 보았다.

알도 판 아이크는 건축이 영원한-다양한, 오래된-새로운 것과 같은 시간의 양극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²⁾

7)M. Lampugnani저, 지연순·유재희 역, *현대건축론*, 세진사, 1997, pp.339~340

8)Aldo van Eyck, *Detail of Roof, Home for Children, Amsterdam, Progressive Architecture*, 1962, 9, p.155

9)A. Lüchinger, *Ibid*, p.132

10)A. Lüchinger, *Ibid*, p.133

11)A. Lüchinger, *Ibid*, p.39

3.5. 수의 미학

2차대전 이후 직면한 건축의 양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의 미학'-동적인 조화-이라는 사상을 주장했는데 이는 네덜란드 구조주의의 형태적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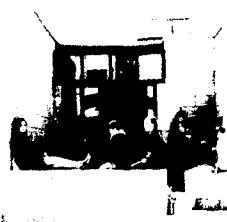
1956년 CIAM 회의에서 Team X은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모든 계획안을 세포단위(cluster), 가동성(mobility), 성장과 변화(growth & change), 도시와 주거의 측면에서 다루었다. 알도 판 아이크는 큰 스케일을 지니는 구조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는 커뮤니티의 내향성을 주장 하였으며, 이것은 주택과 가로, 그리고 장소에 따스함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형태는 북아프리카 원주민 주거의 원시형태에서 유추되었으며 '모호성 속에서의 명료성' 혹은 '질서와 혼란'이라는 개념으로 혼란이라는 요소도 중요한 기능으로 보고 있다.

이는 '증식' 혹은 '변환'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각 증식 단계는 단계마다 요구되는 공공시설들을 나름대로의 구조적 패턴 안에서 융합함으로서 적절한 식별성을 이룩할 수 있다.

4. 네덜란드 구조주의 건축의 실내공간 특성

4.1. 매개공간



<그림 4-1> 몬테소리 스쿨 입구(헤르만 헐츠베르하)

구조주의 건축가들은 명확히 정의된 매개공간에 의해 어떤 것에서 다른 것으로 이동해 가는 것을 공간적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이동 전후 공간의 존재 의의까지도 환기시키려고 했다. 즉, 상반된 양극성을 화해 시키기 위한 것으로 외부에서 내부로 전이되는, 혹은 그 반대의 경우가 행해지는 입구영역과 기능적으로 분리된 공간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중정, 그리고内外부의 공간적 관입을 가능하게 하는 테라스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활공간과 매개공간을 전체조직에서 중요한 위치에 두고 복도를 사회적 공간으로 만들고 건물의 홀을 가로나 광장과 연결지음으로 인해 경계성이 이룩된다. 이것은 외부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게 되고, 건물에 대한 개념이 상대적인 성격을 지게 되며, 도시는 더욱 내향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건물과 그 주변 환경과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즉, 이것은 동선이나 사회적 접촉의 측면에서 볼 때 유통성

을 지니므로 사회적으로 유익한 측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4.2. 내부가로

사용자나 보행자를 적극적으로 실내공간으로 유도하기 위한 개념으로 단순한 복도의 개념보다는 그 공간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장치로서의 공간이다. 건물 안의 내부가로는 짐밖의 가로를 내부에 연장하는 개념으로 건물내부에 외부의 가로공간을 만들어 건물 속의 도시를 실현한 것이다. 이 공간은 주로 기둥을 사용한 필로티로 처리되며 내부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외부공간의 요소들 즉, 가로등이나 상점, 은행 등을 내부에 배치함으로서 내향적인 성격을 지닌 공간으로서 내부와 외부라는 상반된 개념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그림 4-2> gallery-street
(헤르만 헐츠베르하)

건물과 가로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제공된 내부가로의 채광방법은 가로등 같은 인공조명도 사용되지만 주로 천창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천창은 외부환경을 반영하고 내부가로에 충분한 빛을 도입할 수 있으며 건물 안에서 건물 외부의 활력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4.3. 실내광장

모든 공간에서는 가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커뮤니티 공간을 부여했을 때, 그 공간은 생명력을 지니게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공간이 된다.

구조주의 건축은 실내광장의 개념을 대형공간에 도입하므로 써 오래된 건물을 지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실내광장에서는 노천카페가 차려지기도 하면서 실내광장을 바라보는 각 면들은 더욱 외부공간의 입면처럼 느껴지게 된다. 혹은 바닥에 광장의 보도와 같은 패턴을 깔고 가로수를 심으며 가로등을 설치하면 외부공간같은 느낌은 더욱 증가 된다.

4.4. 다층구조

최대한의 시야를 확보하여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기 위한 것으로 주로 스플릿 레벨이나 오프닝에 의해 대각선의 시야



<그림 4-3> 아풀로 스쿨
(헤르만 헐츠베르하)

가 유도되고 있다. 단면에서 이것은 공간의 상호관입을 일으킨다. 공간의 상호관입은 인체의 운동을 자극시키면서 인간을 율동적인 공간의 흐름을 통해 자연스럽게 유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입면의 이러한 특성은 벽과 벽 사이의 모서리를 개방함으로서 표현되고 있다. 또한 다층구조에서 보여지는 대각선 시야

12) 안현정, 네덜란드 구조주의의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흥의대: 석사논문, 1998, p.35

는 공간의 풍부함을 창출하고 사람들간의 커뮤니티를 증대시켜 건물 안을 활기차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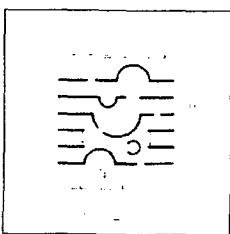
4.5. 여지의 공간

그 형태가 사용자에 의해 구체화되는 공간으로 어떤 건물을 설계하든지 간에 거주자로 하여금 모든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을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두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물을 해석될 수 있는 식으로 만듦으로서 개인적 해석 가능성을 부여해야 하며, 이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그 공간에 대한 강한 소유욕을 불러 일으킨다.

4.6. 미로의 공간

원시형태에서 영향을 받은 ‘미로의 명료성’ 개념을 건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이들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적용한 것으로 똑같은 모양의 반복을 통해 건물 내부에 도시와 같은 혼란함과 복잡함을 제공해준다. 이러한 미로의 공간은 사람들을 우연한 만남의 연속으로 유도하고 더 다양하고 풍부한 공간을 창출한다.

미로는 사이 사이에 자그마한 실내영역을 갖는다거나 혹은 공간이 전체적으로 구심적 확산 구도를 갖는 등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어 나타난다. 이것은 미로가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공간 구조라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새로운 질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조형환경에 요구되는 질서기능 자체는 유지하되 근대 기능주의 건축의 균질 공간이 유발한 건축 환경의 삭막함에 대한 치유적 대안의 개념으로 복합 공간을 활용한 미로적 질서를 제시한 것으로 이해 될 수도 있다.¹³⁾



<그림 4-4> 조각
파빌리온(알도 판 아이크)



고자 제시되었다. 구조주의 건축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여지의 공간을 제시하였으며 외부에서 내부로의 내향적 성격을 지닌 내부가로, 광장 등을 표현하여 건물이 하나의 작은 도시와 같은 생명력있는 구조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거주자들의 참여와 영역의 문제 즉,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공공 공간의 접근성, 그리고 단순히 대립되는 개념이 아닌 두 영역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매개공간, 공간의 풍부함과 커뮤니티를 위한 다층구조, 미로의 공간 등 전축구조 내에서 인간적, 사회적 요소를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대 건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네덜란드 구조주의가 비 서구지역을 대상으로 그 원형을 연구 분석하여 그 해결점을 모색하였듯이 한국 현대 건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본 논문을 고찰하였다.

참고문헌

1. 김문덕, 네덜란드 근대건축의 상황과 전개, Plus, 2000, 1
2. 안정현, 구조주의 관점으로 본 건축공간 해석 방법론, 부산대: 석사논문, 1996
3. 안현정, 네덜란드 구조주의의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98
4. 전영식, Louis I. Kahn의 건축에 나타난 구조주의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1997
5. 조성기, 구조주의 건축과 탈구조주의건축의 구조체계와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94
6. 최준호, 건축에 있어서 구조주의 방법론의 표현경향에 관한 연구, 경원대: 석사논문, 1995
7. 임석재, 미니멀리즘과 상대주의 공간, 시공사, 1999
8. A. Lüchinger, 최종현·이기민 역, 구조주의 건축과 도시계획, 세진사, 1989
9. Claude Levi-Strauss 저, 김진욱 역, 구조인류학, 종로서적, 1983
10. F. Saussure 저, 최승언 역, 일반 언어학 강의, 민음사, 1995
11. M. Lampugnani 저, 지연순·유재희, 현대건축론, 세진사, 1997
12. A. Lüchinger, Dutch Structuralism, a+u, 1977, 3
13. Herman Hertzberger, Questionnaire to Herman Hertzberger, a+u, 1983, 12
14. Arnulf Lüchinger · Piet Blom, Clown Amongst Architects, a+u, 1985, 11
15. A. Lüchinger · Den Haag, Structuralism-a new Trend in Architecture, Bauen+Wohnen, 1976, 1
16. Aldo van Eyck · Piet Blom, In Search of Labyrinthian Clarity, L'Architecture D'Aujourd'hui, 1975, 1
17. Aldo van Eyck, Lumière Couleurs et Transparence, L'Architecture D'Aujourd'hui, 1981, 10
18. Aldo van Eyck, Detail of Roof, Home for Children. Amsterdam, Progressive Architecture, 1962, 9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덜란드 구조주의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전후로 하여 획일화된 건축문화와 유럽의 주택문제, 산업사회 및 과학의 발달로 인한 인간소외 현상을 극복하

13)임석재, 미니멀리즘과 상대주의 공간, 시공사, 1999, pp.286~290